

# 빵집아저씨 장가가던날



윤제학  
동화작가  
본사 출판부장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사람들은 그 곳을 하늘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흔히들 달동네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가파른 언덕바지에 따개비 같은 집들이 어께를 맞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워낙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한 채의 커다란 집처럼 보였고, 하나하나의 집들은 하늘을 향해 열린 커다란 창문과도 같았습니다.

이 동네가 하늘마을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몇 년 전부터입니다. 주위에 높다란 아파트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하나같이 '은빛마을'이나 '달빛마을'과 같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서부터이지요. 네모난 통처럼 생긴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말이에요. 그러자 이 동네도 자연스레 '하늘마을'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지만 참으로 하늘마을이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동네였습니다. 아침이면 햇살이 가장 먼저 손길을 내밀었고, 밤이면 또 별빛이 한달음에 달려와 눈빛을 하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이 아니예요. 봄이면 손바닥만한 공터에서도 상추나 옥수수 같은 푸성귀들이 얼굴을 내밀어 사람들의 눈을 파랗게 물들였고, 여름이면 매미들이 일 나간 엄마 대신 하루 종일 자장가를 불러 주었습니다. 가을이면 또 잘 여운 햇살이 겨우살이 준비하는 엄마들의 등에 얹혀 낫장을 즐기곤 했지요. 그런데 뭐니뭐니해도 아이들에게 가장 신나는 계절은 겨울입니다. 평평 눈이 내리는 날은 동네 전체가 멋진 눈밭매장으로 변하니까요. 어른들도 이 때만큼은 아이들을 위해 길을 양보했습니다. 차가 다니기 힘들도록 하기 위해 연탄재를 깨뜨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아예 동네 입구에서 이렇게 써 붙여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눈이 녹을 때까지 이 골목은 아이들의 눈밭매장입니다. 이곳에서부터는 차에서 내려 걸어 주십시오."

동네 자람이 너무 길었나요? 사실 동네 자람을 하려고 이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는, 오늘 아침에 이 동네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에 대해 얘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주인 장가는 날. 그래서 아주 기분좋은 날. 오늘 오시는 손님께서는 공짜. 문은 열려 있습니다." 빵집을 찾은 손님들은 병그러진 입을 채 다물기도 전에 힘차게 문을 열고 빵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토크처럼 동그랗게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글씨로 쓰여진 글귀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평소엔 사시던 양만큼만 가져 가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온 손님도 헛걸음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시장 한 귀퉁이에는 결혼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목수일을 하는 박씨 아저씨가 몇 번의 품질과 망치질로 똑딱거리자 멋진 결혼식장이 만들어졌고, 문방구 아줌마의 손끝이 지나가자 도무지 걸거리 예식장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화려하게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노점상들도 손수레를 저만치 밀쳐 놓고 신랑 신부가 행진할 길을 청소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독립심이 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걸어나올 이 길 또한 두 사람에게는 눈 감고도 다닐 만큼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므로 하객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피아노 소리를 났으며 신랑 신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의 얼굴엔 웃음기가 없습니다. 입이 벌어져 귀까지 보드득 모자랄 줄 알았는데 말이예요. 너무 긴장된 탓일까요? 아니면 결혼식 앞에 있어야 할 부모님들 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그럴까요?

했습니다. 마침 지나던 길가에 조그만 절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도 이곳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불전함을 열어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움켜 쥐고는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침착해 야 해.' 마음 속으로 다짐하며 넋죽 절까지 하고는 법당문을 나왔습니다. 그 때까지도 절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실금실금 고양이 걸음으로 절 마당을 다 벗어날 뻔했습니다. 인기척을 느끼고 뒤돌아보니 자그마한 몸집의 노스님 한 분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그렇다고 웃는 것도 아닌, 도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이렇게 앙다짐을 하며 다시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노스님의 나직함 들음이 귓가로 다가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리는 소리 같아서 도무지 자신을 향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이야 다시 채워지겠지만 잃어버린 재네 마음은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는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손살같이 달

은 마음으로 만듭니다." **결** 혼식은 속 깊은 호수처럼 가라앉았 습니다. 작은 일렁임도 없는 호수의 얼굴엔 하늘이 먼저 내려앉고 그 위로 사람들의 편한한 웃음이 드리워집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다시 푸른나라 대통령의 피아노 음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동네 북덕방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동안은 장기간 잘 두시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모두 멋쟁이 주례 할아버지께 박수." **다시** 결혼식은 흥겨움이 넘쳐 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맨 꼭대기에 있는 햇살보육원의 어린이들이 축하를 준비했습니다." 골목에 숨어 있던 아이들은 들뜬으로

"잃어버린 돈이야  
다시 채워지겠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어디서 찾을꼬"  
노스님의 음성이  
귓가로 다가와...

니다. 아니, 그런데 저게 뭐예요. 채소 가게 아저씨의 트럭으로 하얀 피아노가 실려 오는 게 아닙니까. 그것도 하얀 그랜드 피아노로 말이예요. 트럭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부르릉' 하는 발동 소리가 '또르릉' 하는 피아노 소리로 들리는 것 같



그림 · 문병성

## 들꽃 꽃다발을 받은 신랑 신부는 트럭을 타고 시골절로...

습니다. 아하, 이제야 알겠네요. 아파트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 선생님이 축하 연주를 할 건가 봐요. 피아노 선생님은 김씨네 빵집 단골 손님 이거든요.

이것으로 결혼식 준비 끝.

"자, 그럼 지금부터 편향 같은 신랑 김덕봉 군과 송편 같은 신부 박메미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에..."

사회를 맡은 채소 가게 아저씨의 너스레가 시작되자 이곳 저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하늘나라 주민들의 비타민을 책임지고 있는 '푸른나라'의 대통령 최석만이 올습니다. 예, 아마 대통령이 결혼식 사회를 본 건 인류 역사상 오늘이 처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푸른나라"라는 이름의 채소 가게 주인 아저씨는 언제나 웃음을 물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저씨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온대요. 언제 어떤 얘기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다시 채소 가게 아저씨의 말이 이어집니다.

"오늘 신랑 신부는 함께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

빵집 아저씨 김덕봉. 하지만 아저씨는 본래의 성이 '김'인지 '박'인지 '문'인지 모릅니다. 갓난 아기 때 맡겨진 고아원에서 김덕봉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그래도 성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흔한 김씨였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 재나 착하고 말없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착한 아이는 위험한 아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낳아 준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질수록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고아원을 뛰쳐나왔습니다. 또래의 아이들은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하늘을 훨훨 나는 꿈을 꿀 때였습니다.

이곳 저곳을 떠돌았습다. 딱치는 대로 일을 했고 돈이 조금 모이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서 살아야 할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았습다.

어느 조그만 시골 동네를 떠돌 때였습니다. 가진 돈은 바닥이 나고, 배고픔은 흉수처럼 밀려들

렀습니다. 무작정 서울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숨겨 좋은 제빵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북덕방 할아버지의 주례사가 끝을 맺고 있었 습니다.

"저는 그 동안 수많은 신혼 부부들의 보금자리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넓고 좋은 집을 장만하여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난생 처음으로 주례라는 걸 하면서 저는 그 동안의 제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다. 진정한 행복은 사는 집의 평수를 넓혀 나가는 일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두 사람은 우리들의 이웃이자 좋은 친구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비록 길거리이긴 하지만 겨울이면 따끈한 커피로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 주었고, 여름이면 값싸고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으로 우리들의 갈증을 달래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결혼식을 계기로, 우리의 하늘마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래도록 살고 싶

"이 결혼식을 계기로  
우리 하늘마을을  
오래도록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듭시다"

만든 꽃다발을 신랑 신부에게 안기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넋떠야 흘러올라 어디로 가니 강물따라 가고 싶어 바다로 간다. ...."

노랫소리를 따라, 먼 곳에서 지켜 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팔던 아줌마도 생선을 팔던 아줌마도 자리를 털고 일어섭니다. 순식간에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들은 라면통 조각에 적힌 가격대로 물건을 치르고는 호호한 웃음을 덩으로 얻어 갑니다.

노래를 끝낸 아이들은 길다란 종이를 펼쳐 듭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을 날마다 주셔서요."

김씨는 감쪽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몰래 문앞에 두었을 뿐인데, 난 그저 지난 날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절에서 흥건 돈을 조금씩 갖고 있을 뿐인데..."

신랑 신부는 신혼 여행길에 오릅니다. 시골 마을의 조그만 절을 찾아가서, 푸른나라 대통령이 특별히 빌려 준 트럭을 타고요. 그곳엔 지금도 그 노스님이 계시까요? 계시다면 지금쯤은 꼬부랑 할아버지가 뵈셨죠. 그러나 만약 돌아가셨다면 누가 두 사람을 반겨주죠?

하지만 그런 걱정 마세요. 벌써 부처님께서는 동구에서 이제나저제나 하며 두 사람을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 佛敎大辭典

불교사전의 금자탑! 불교대사전 출간!

最多語彙 · 最新譯解 · 最善編輯

제작기간 10년, 기존의 불교사전과 전혀 다른, 고대에서 현대까지 불교의 핵심적인 용어 6만3천여개를 선정하여 문장을 간결하고 평이하게 현대적 어휘로 표현하였다.

최고급양장/크라판판 上 · 下 3,600면/정가220,000원

불교를 바로 알고 싶습니까!

절에 10년을 다녀도,  
날마다 법문을 들어도,  
부처님의 정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교 대사전』을 보십시오.  
부처님의 세상이 보입니다.

불교대사전 정가 220,000원  
밀교사전 정가 70,000원 (주문가230,000원)

신한은행 : 324-12-407937  
농협 : 053-01-102503 (예금주:김정길)

도서출판 종법원 · 서울 종로구 건지동 55-2 TEL(02)734-7614, 739-8745, 팩스735-2344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도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혈원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적인 피톤치드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기 임부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몸의 효능, 악리작용의 새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 · 기미  
저는 조씨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명체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우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현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민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체형  
저는 조씨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명체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년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통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랄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우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현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지 않을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민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 해당되는 증상 (O) 미시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장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통이 자주 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배가 아프고 고통스럽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생리때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고혈압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하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